

김- 민수단원 회계하다 올먹여 ...

태풍이 지나가고 급증한 모기,
한 다리에 30방 중격 싹화

할로

할-로

스페셜 개인 에세이 수록 !!!

서로 다른 재료가 섞여 조화로운 맛을 내는

필리핀 **트래디쇼널 氷水** - '할로할로'처럼
현지에 잘 조화되는 필리핀 팀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九月호

Ocho Ocho와
Touching story까지 알차게

목차

1. 9월 활동정리

- Pumunta; go
- kumain; eat
- aral; study

2. 피드백

-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 쇼미더머니
- 집에서 살아남기

Kumain ;eat

- 1. (음식, 밥 등음) 먹다**
- 2. 식사하다**

필리핀에선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 **간식** 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에서부터 현지 과일과
할로할로라는 이름의 빙수에 큰 기대를 안고 있었다.

한국과는 달리 작거나 뚱뚱한 모양을 한 바나나도 볼 수 있었다.
망고, 람부탄, 망고스틴, 파파야, 란조네스 등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시장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다.

할로할로는 우베라는 식물이 핵심재료인 빙수다.
우베, 젤리, 코코넛 밀크 등이 들어가있다.
필리핀의 여러 체인점에서 각기 다른 할로할로를 볼 수 있었다.

부엌을 벗어나는 외식은 언제나 짜릿해



필리핀 현지 음식을 종류별로 먹을 수 있는 뷔페에 갔다.
레촌, 카레카레, 시식, 비콜 익스프레스 등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막사이사이 스트리트에는 많은 키날라스 가게가 있다.
키날라스는 돼지 머릿고리를 넣은 국수로 진한 국물이 특징이다.



Miguel 셰프 와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나가 살이 첫날, 코디네이터들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Kuya Miguel과 함께 집에서 현지식 요리를 했다.

생선 몸통에 토마토를 넣고 연탄에 굽는 요리부터
구운 가지를 간장에 절인 요리, 우리에게 친숙한 아도보와 찹소이가 있었다.

가스레인지 대신 연탄에 요리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다.
사 먹는 요리가 아니라 직접 해먹는 첫 필리핀 식사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아기다리고 기다리던스 트리트푸드



둘째 주에는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사먹는 모습을 자주 봤고 궁금했었다.

우리는 짹짹이라는 계란 튀김과 닭머리 튀김, 닭발 등을 먹었다.
대부분의 튀김에 식초를 발라먹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부들파이트라는 필리핀 전통 식사방법을 경험하기도 했다. 바나나잎 위에 밥과 반찬들을 올려놓고 손을 사용하여 먹는 방식이다. 음식을 두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운다는 의미에서 파이트라는 단어가 붙었다.

우리는 집어먹기 쉬운 김치전과 감자전을 준비했고, kuya 들은 필리핀 음식인 라잉과 돼지고기구이를 준비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으니 어색할 것만 같았던 손으로 반찬을 집어먹는 일도 즐겁게 경험할 수 있었다.



한식과 필리핀식의 콜라보레이션

우리들만의 부들파이트

본격 주부 9 단

잘할 수 있는 필리핀 요리가 적었기 때문에
9월 한달간은 주로 한식을 해 먹었다.
다행히 K마트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재료를 어렵지 않게 구했다.
김밥, 김치부침개, 감자전, 미역국, 불고기 등의 한식을
자원봉사자 친구들에게 경험시켜주기도 했다.



Pumunta ;go

- 1.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다**
- 2.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장소, 행사에) 가다**

시작에 마닐라



마닐라의 ymca hotel에서 2박 3일간 머물렀다. 숙소와 멀지 않은 곳에 ymca manila office가 있었다. daddy Pat을 비롯한 많은 ymca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낯설었지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주는 분들 덕분에 점차 적응해나갈 수 있었다.

필리핀 영웅인 Jose Lizar의 이름을 딴 공원과 전쟁기념관을 비롯해 다양한 역사유적지에 가기도 했다. 필리핀의 역사를 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거대한 건물들을 보면서 웅장함을 느끼기도 했다.

CBSUA 탐방



농업 중심 대학교인 Central Bicol State University of Agriculture을 탐방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업을 받거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organic 식단으로 짜여진 점심식사를 대접받기도 했다. 실습을 통해 실제로 사용가능한 기술을 배운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대학교와는 차이를 볼 수 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Camarine North에서의 주말



YMCA Camarine north와 함께한 주말도 뜻깊었다.

Daet school로 이동해 Feeding에 참여했다. 학교의 장애 아동들은 준비해준 공연으로 우리를 뜨겁게 환영해주었다. 감동이었지만 과분한 대접을 받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한 일정이었다.



Feeding을 마치고 근처에 위치한 해변에 갔다. 고기를 구워먹고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소속된 YMCA Camarine South뿐만 아니라 YMCA Camarine North와도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였다.



Viva la virgin Festival

9월 한달간 집 근처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있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Bicol 지역 총 7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는 페스티벌이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의상을 입고, 악기연주와 함께 행진하는 퍼레이드는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질 정도로 큰 규모였다. 이를 위해 오랜기간 수많은 학생들이 들었을 시간과 노력을 느끼며 새로운 필리핀의 문화와 전통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홈스테이 시작 전, San Fernando 방문

우리의 두 번째 San Fernando 방문!
먼저 루피마을의 Day care center에 갔다. 몇몇 아이들에게 친숙히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한편, 홈스테이가 시작되고 선생님께 도움이 되고자 수업 방식을 눈에 익히기도 했다.

이어서 루피마을이 속한 San Fernando 시장님을 만나 라온아띠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제 정말 홈스테이와 프로젝트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 긴장되기도 했다.



Lupy life
To be continued!

aral ;study

1.(책, 경험 등을 통한) 공부, 학습, 학문

2. 학업

3. (일부 학문명에 쓰여) -학

소통의 첫걸음



필리핀은 따갈로그어와 영어가 국어이지만, 각 지역별로 지역언어를 가지고 있다. 나와 루피 역시 지역언어인 비콜어를 주로 사용했다. 그래서 따갈로그어와 비콜어를 동시에 배웠다. 정기적으로 선생님께 언어수업을 받았다. 9월이 끝나갈 즈음 수업은 종료되었고 coffee the table이라는 카페에서 알바하며 직접 배운 것을 활용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소통에 있어서 언어뿐만 아니라 웃음이 나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요소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싱어 댄싱 투게더

Daycare center에서 따갈로그 동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먼저 이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머리 어깨 무릎 동요와 아기상어, 야채송 등을 연습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즐기면서 부르고 춤출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아이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Life lesson



Kuya Resty와 life lesson 일정을 함께 했다. 리스트에 있는 가치관들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 공유했다. 각기 달리 적힌 인생의 우선순위를 보며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팀원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피드백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우리의 일정은 자주 변경되거나 갑작스럽게 추가되었다.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쉴 수 있는 시간에 쉬지 못해서, 계속 연락을 기다려야해서 피로가 쌓였다. 현지 코디들과의 신뢰가 떨어지기도 했다.

2 실내화로 확인하는 출타

유동적 일정으로 인해 자유시간이 갑작스레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자유시간 일정 공유가 사전에 진행되기 힘들었다. 서로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현관 앞에 놓인 실내화로 누군가의 외출을 짐작할 뿐이었다.

이제 우린

1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매일 저녁 일정을 코디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조율했다. 우리가 원하는, 고정적인 일정을 만들어 피로해진 몸과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또 기다리는 시간동안 일기를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하는 할일들을 챙겨오기 시작했다.

2 실내화로 확인하는 출타

자유시간에 갑작스럽게 개인일정을 만들어 이동할 경우, 주변 2명 이상의 팀원에게 알리기로 약속했다. 특히 혼자 나갈 때 휴대전화를 꼭 챙겨가기로 했다.
또 시흥에 이어 화이트보드에 돌아오는 시간과 대략적인 이동경로를 적기로 했다.

쇼미더머니

1 혼란의 마지막주

마닐라로부터 생활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몇 번이나 발생했다. 처음에는 개인 사비로 우선 대체해서 사용했지만 이는 공금 도착 이후의 돈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또 사비를 공금으로 다 써버려서 정작 자신이 필요한 용품을 사지 못하는 팀원이 생기기도 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일정을 위한 공금이 도착하지 않았을 땐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돈이 없어 4일 가까운 일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돈이 오기를 기다리며 하루를 그냥 날려보내기도 하는 등 일상에 불안을 주기 시작했다.

이제 우린

1 혼란의 마지막주

공금이 도착했을 때 회계 담당 팀원이 좀 더 수월하게 돈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잘 챙겼다. 회계 담당 팀원은 사비를 사용한 팀원들의 기록을 매일 한데 모아 혼란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현지 코디네이터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집에서 살아남기

1 스텝원 밥 정하기

함께 생활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 스케줄이 공유되지 않거나 갑작스레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가 생겼다. 식사를얼만큼 준비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었다. 또 현지인과 입맛이 달라 신경써서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다.

2 스텝투 부엌에 있기

시흥에 이어 **5명**이 함께 식사 준비를 했다. 부엌은 좁았고, 더웠고, 습했고, 모기도 많았다. 불필요한 체력 소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집에서 살아남기

3 스텝쓰리 낫선 밥 먹기

각자의 입맛이 다르고 익숙한 요리를 하다보니 한식을 주로 먹게 되었다. k마트에서 재료를 구매해야 해서 지출이 커졌다. 외식을 할 때도 익숙한 맥도날드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다.

집에서 살아남기

1 스텝원 밥 정하기

반찬은 따로 준비하되 밥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준비했다. 또 현지 코디네이터에게 적극적으로 손님 수를 물어보고 메뉴를 논의하는 등 맞춰나가고 있다.

2 스텝투 부엌에 있기

2명, 3명의 팀으로 나눠 팀별로 식사를 계획하고 준비했다. 요리를 하지 않는 팀은 설거지를 담당하고 요리 중에는 개인시간으로 활용해 피로를 줄였다. 또 부엌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자 메인 요리 한 가지를 주로 준비했다.

집에서 살아남기

3 스텝쓰리 낫선 밥 먹기

식사 메뉴를 계획할 때 코디네이터나 봉사자들에게 비슷한 현지 식재료를 물어 대체하려고 노력했다. 또 저렴한 현지식당보다 맥도날드를 자주 이용한 것에 대해 팀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지식이 어려운 팀원들도 있기에 번갈아 외식하기로 했다.

THANK YOU PO!